



보도일시 2023. 6. 21.(수) 08:00
6.21.(수) 석간

배포 2023. 6. 20.(화) 09:00

2027년까지 농식품 산업에 민간자본 5조 원 유치

- 성장 가능성이 높은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민간투자를 뒷받침하는 생태계 조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1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민간 주도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여 2027년까지 농식품 산업에 5조 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 정부재원(0.6조 원) 포함 시 총 5.6조 원 투자재원 마련(정책민간 기금 1.3조 원, 민간 여신 4.3조 원)

이번 대책은 「투자정보 생산·공유 - 투자재원 확대 - 회수시장 활성화 -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 농식품 산업에서 성장 가능성 있는 분야와 경영체를 발굴하여 민간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정보 부족과 비대칭 문제 해소를 위해 산업동향·우수경영체에 대한 투자정보 분석보고서를 연 80개 정기 발행하고, 금년 9월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투자정보를 통합 제공하며, 연 20회 이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둘째,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투자 목적의 기금(자(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 기금(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 민간 기금(모펀드)을 조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총 3,000억 원 이상의 민간 기금(펀드)를 결성하고 스마트농업,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친환경 생명 공학(그린바이오) 등 농식품 신산업 유망경영체에 투자하도록 뒷받침한다. 그리고 농협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유망한 경영체를 위해 기술력, 성장 가능성 등 비재무적 평가를 강화한 여신상품을 출시하여 2027년까지 총 4.3조 원의 신규 여신을 공급한다.

셋째, 투자 자본의 유동화가 어려우면 투자 결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중간 회수 수단인 세컨더리펀드*를 2027년까지 총 1,500억 원 추가 결성한다. 또한 한국거래소와 협업하여 농식품 경영체 전용 상장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 다른 기금(펀드)이 보유한 주식을 매입하거나, 출자자(LP)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거래하는 기금(펀드)

마지막으로 2027년까지 정책 기금(펀드)을 1조 원 이상 결성하여 새싹 기업(스타트업)·청년·지역 등 정책지원 필요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창업 초기 경영체에 대한 투자 유인 제고와 후속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 별첨 1. 농식품분야 민간투자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 2. 농식품분야 민간투자활성화(인포그래픽)

담당 부서	농업정책관실 농업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동윤 (044-201-1751)
		담당자	사무관	김명관 (044-201-1752)

